



그러려니

섬세하고 다정한 선배님의 댁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깔끔하신 성품대로 실내가 정갈하게 정돈돼 있었는데 책상 위에 작은 액자가 눈에 띄었다. 수많은 책 사이의 잘 보이는 곳에 있는 것으로 보아 중요한 의미를 지닌 애장품으로 짐작됐다. 그러나 크기가 손바닥 정도로 작는데다 글씨 또한 빼뿔빼뿔하고 투박한 모양이어서 의아했다. 더욱이 ‘그러려니’라는 단 네 글자여서 쉽게 이해되지 않았다.

흔히 볼수 있는 이상이나 목표가 아니라 생소하고 난해한 탓에 이를 풀이하느라 진땀을 뺐다. 심지어 끝자가 ‘니’여서 석가모니 같은 성직자 중 한 분을 존경하고 계신 건가 하는 별의별 생각까지 들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평상시 대수롭지 않게 쓰던 ‘그러려니’라는 것을 뒤늦게 알고는 얼굴이 화끈했다.

선배님의 모친은 매사에 ‘그러려니’ 하며 참고 이해하라는 당부를 입에 달고 사셨다고 들려 주셨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가진 것이 부족해도, 화나고 마음의 상처를 입더라도 ‘그러려니’하라며 다독였다는 것이다. 초근목피의 곤궁하고 남루하던 시절의 가슴앓이와 솟구치는 열정, 그리고 저항이나 불만을 잠재웠던 한마디는 바로 ‘그러려니’였다.

한글도 배우지 않으신 어머니에게 달력 뒷면에다 ‘그러려니’라는 글자를 한동안 익히게 하신 후 그중에서 잘된 글씨를 골랐다는 말씀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말씀은 하셔도 쓰지를 못하셨던 어머니를 오래 기억하기 위한 가벼운 마음으로 만들었지만 이제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 됐다는 것이다. 액자크기보다 큰 울림이고 충격이었다. 자주 찾아뵙지 못하지만 숙연하고 애잔함의 여운이 남는 30여 년 전의 삽화다.

누구 보다 자존심 세고 꿈이 컸던 선배님으로서 매사 양보하고 참고 이해하고 절제하는 삶을 받아들이기 이전 얼마나 괴로웠겠나, 아버지를 일찍 여의신 후 바보 같은 삶에 대한 회한이나 탈출의 유혹이 어찌 한두 번이었겠나.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매사 자족하며 감사하라는 긍정의 가르침이 유언처럼 책상에 앉을 때마다 육성처럼 들린다고 회고하신다. 액자는 어머니가 남기신 훈장인 셈이다. 대부분의 부모님은 빨리 가려다 넘어지고 다치는 것을 안쓰러워 하신다. 급할수록 돌아가고 참는 것이 이기는 것이며 때리는 것보다 맞는 게 발을 뻗고 잘수 있음을 강조하신다. 또 혼자 괴로워하고 상처를 받느니 상황을 뒤집을 수 없다면 하루빨리 잊고 노력하는 것이 순리라고 타이르신다. 울화가 치밀어 한마디 하고 참견한다고 마음이 편해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응어리가 남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그렇다고 ‘그러려니’는 쯤대 없는 자기 합리화나 대충 하라는 것과는 다르다.

어쩌면 오늘날 ‘그러려니’는 멍청하고 어리석은 행태로 매도될지도 모른다. 형편이 어렵다고 도전하지 않고 순응하며 기다리는 것은 바보나 다름없다는 항변에 할 말이 없기 때문이다. 공연히 손해를 왜 보며 나를 무시하는데 참고만 있느냐는 주장도 나를 이해된다. 또 상대의 피해나 상처보다 자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도 설득력을 지닌다. 의사 표현이 확실하고 속내를 감추지 않는 신세대들로서는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다.

과연 ‘그러려니’의 정신은 고리타분하고 유약한 유산일까. ‘그러려니’는 무조건적인 관용, 인내, 굴종의 다른 표현이 아니다. 먼저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절제와 긍정의 가르침을 함축한다. 급한 성격과 가벼운 처신이 더 큰 화를 불러왔던 회한을 수없이 경험하는 우리다. 오판과 실수로 예견되는 이후의 후유증까지 배려한 선택적 삶의 방식이었다. 상대와의 다름과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면 별일이 아닌 것이다. ‘그러려니’는 편견의 대상이 아니라 순기능이 돋보이는 삶의 지혜가 아닌가 싶다. 요즈음 너나없이 힘들고 지친 각박한 세태일수록 ‘그러려니’에 담긴 정신은 시사하는 바 크다.



민경탁 위원
충북중재부